

3월 구역모임

기도 응답의 확신

☪ 1. 환영 Welcome

- ◎ 인사와 교제
- ◎ 감사와 나눔

☪ 2. 찬양 Worship

- ◎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280장)
- ◎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369장)
- ◎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364장)
- ◎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365장)

☪ 3. 말씀 Word

| 생각하며 읽기 |

- ① 기도를 통해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봅시다.
- ②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③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그 필요를 하나하나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6:30~32)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10:30~31)

우리는 자신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우리의 약점과 장점 등 모든 것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7:7~8)

(2) 왜 구해야 주시는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셔서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1:28)

원래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온갖 채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간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흙이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티끌과 먼지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15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질서를 스스로 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이해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망극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 하나라도 당신의 아들과 딸들과 힘을 합해 이루어 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우리의 동역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실입니다.

(3)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2~3)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4)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마7:7~9)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대하16:9상)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8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눅11:9)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실제로 구했지만 얻지 못한 우리 삶의 간격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

우리가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라는 의심 섞인 태도로 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하며 의심 없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웅골찬 믿음을 실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둘째,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요한이 밧모 섬에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을 계시로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5:8)

우리의 기도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골방이든 교회이든 길이든 직장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계8:3~5)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기가 되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 대접에 쌓입니다. 금 대접에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꼭 차면 천사들이 금 대접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대접에 향기가 다 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접을 하늘에서 땅으로 확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기도의 향기를 땅으로 다시 쏟으니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구조입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금 대접에 향기가 찰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기도 제목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로 채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단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일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향아리에 기도를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도 제목이 현실 가운데 변화로 이어져 응답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한두 차례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신뢰의 끈이 형성됩니다. 이처럼 한 번 하기 시작한 기도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셋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즉각 채워 주십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씩 초보 단계를 벗어나면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도의 말은 거룩한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당당히 요청하지만, 그 속에 내 뜻을 교묘하게 집어 넣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위장된 기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처음에는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섞여 있는 줄도 모르고 마구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구하면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5) 기도의 본질은 기도자 자신의 변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영혼이 성화되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핵심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짖음으로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요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 (1)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렘33:2-3). 이 말씀을 나는 진실로 믿는지 혹은 믿어지지 않는지 그렇게 느끼는 이유와 함께 솔직히 나눠보십시오.
- (2)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가 나의 기도했던 과거의 태도에 대해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 (3) 그 외에 이번 공과공부 중에서 내 마음을 끌거나 새롭게 결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한 후에 마무리합니다.

🌸 4. 중보기도 Work

-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